

고대가요에 대한 국어교육적 탐색

—사고와 경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홍원*

<차 례>

- I. 문제제기
- II. 고대가요 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 분석
- III. 고대가요 교육 내용 설계의 방향
- IV. 고대가요 내용 설계 1—언어를 통한 인간 사고의 수행
- V. 고대가요 내용 설계 2—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 문제의 경험
- VI. 맺음말

I. 문제제기

문학 교과서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면서도, 정작 국어 교과서에는 수록되지 않고 있는 문학 텍스트의 존재를 상정해보자. 교과서 편재의 차이는 일차적으로 학습자와 텍스트의 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텍스트의 해석이 난해하다거나 텍스트 자체가 모호할 경우 요구되는 학년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인 11학년 이상의 수준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데서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텍스트가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학년을 고려하여 수록한 데서 연유한, 매우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결과인 셈이다.

*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그런데 문학 과목과 국어 과목이 현행 교육과정의 이원화된 구조, 즉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과 ‘심화선택 교육과정’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와는 다른 이유와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달리 인식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 앞에서 상정된 문학 텍스트의 경우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그 의의와 가치가 인정되지만,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보는 인식이 교과서의 수록으로 외현화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수록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는 데에는 여러 차원과 양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 까닭과 이유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국어 교과서의 경우 문학 이외에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등 모두 6개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만큼, 문학 교과서와 수록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교육적 논의가 ‘국어로서’ 또는 ‘문학으로서’와 같이 특정 영역 어느 하나에 편향되어 이루어진 결과, 이들 교과서의 수록 정도에 큰 차이를 낳은 경우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국어’와 ‘문학’이 서로 구별된다는 인식에 따라 국어 과목은 실용적인 텍스트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가르쳐질 수 있고, 문학 작품도 국어 과목이 아닌 문학 과목에서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다는 오해와 편견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이들 고대가요는 이러한 경우를 대표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일차적 이유가

1) ‘국어과 교육과정’과 ‘문학 교육과정’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문학교육을 “국어과 교육 일반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되거나 또는 “국민공통기본과목의 국어 과목의 목표와 유기적 관계를 맺”(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는 것으로 보고, 언어 능력 향상을 공통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학 과목이 국어 능력 향상에 복속되어 있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문학성 체험의 측면과 같은 차별성을 강조하는 입장(하정일, 「‘문학’교육과 문학‘교육’」, 윤영천 외,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9, 237~240면) 또한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지현은 문학 교육과정이 국어과 교육목표로 통합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독자성을 가져야 하고, 국어과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요청된다고 보고 있다. 최지현,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2006, 34~35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대가요 교육에 대한 기존의 접근 관점과 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작품을 둘러싼 외적 실체의 규명이나 ‘문학사(文學史)’적 의의의 전달에 치중한 경향을 비판하고, 국어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 목표와 내용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고대가요 교육 내용을 새롭게 탐색하고 구안한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국어교육과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텍스트가 갖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도출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데에 더 큰 목적을 둔다. 특히 교육적 의의와 효용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고전문학을 대상으로²⁾ 그 가치와 필요성을 입증하려는 것에서 이 같은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 연구에서 굳이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와 같은 고대가요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현존 최고(最古)의 작품으로 물리적 시간의 거리가 최대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거리가 현재 학습자와의 심리적 거리로 작용하면서 이질감을 극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가요의 주제, 정서, 세계관에서 느껴지는 거리감으로 인해 학습자는 감상과 공감보다는 단순 암기와 파악의 대상으로 이들 작품을 바라보고 접근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된다. 고전문학을 지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단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이다. 이처럼 고대가요 교육은 국어 능력을 도모하는 국어교육의 현장에서 고전문학이 외면당하는 현재의 상황을 대표하면서, 한편으로 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 모색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다.

-
- 2) 학습자의 ‘활동’과 ‘능력’을 강조하는 현재의 교육적 패러다임에서 ‘어렵고 낯선 고전문학을 왜 굳이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비판이 자주 제기된다. ‘역사적 원근법’, ‘시공간적 거리감’, ‘역사적 연계성’ 등은 이에 대한 모색의 결과로 제시된 것들이다.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집, 한신문화사, 1992 봄 ; 조희정, 「고전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집, 한국어교육학회, 2006 ;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이들이 대체로 ‘문학적 측면’에서 고전문학의 가치와 효용을 입증하려 한 데 반해, 이 연구는 ‘국어교육과 국어 능력의 측면’을 추가하여 살펴보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고대가요 교육에 대한 기존의 관점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대상과 자료는 ‘고대가요’, ‘상고가요’, ‘상고시가’ 등의 이름으로 묶이는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세 편이다. 이들을 연구 대상과 자료로 설정한 배경이, 첫째 이들 작품이 국문학사의 첫머리에 놓이는 만큼 현재 학습자 사이의 시간적 거리감이 최대치를 나타낸다는 점, 둘째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수록 빈도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에 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고대가요 교육이 국어 수업과 문학 수업에서 각각 다른 위상과 가치로 인식,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차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교재론과 평가론의 차원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 고대가요에 대한 교재론적 분석

고대가요가 중등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교과서 수록 여부를 통해서 고대가요에 대한 교육적 인식과 실태가 어떠한지를 추정해보는 작업이다. 짐작한 바와 같이, 고대가요는 문학 교과서에서 매우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 18종 전체에서 이들 고대가요의 수록 정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고대가요의 문학 교과서 수록 빈도

대상 작품	본문 수록	본문 외 학습 활동 등에 수록	전 체
구지가	9종	4종	13종
황조가	2종	7종	9종
공무도하가	3종	9종	12종

가장 많이 수록되고 있는 작품은 <구지가>로, 본문 수록이 9종이며 기타 학습 활동 등에 수록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 13종에 이른다. <구지가>가 집단적 성격의 노래로서 발생 당시 시가의 원형을 담아내고 있다는 특성에 따라, 문학의 기원을 대표하는 제재 차원에서 수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대가요가 문학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은 개별 교과서에서 이들 전체의 수록 정도를 분석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전체 18종 교과서에서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작품 중 2개 이상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11종에 이른다. 1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서에서 이들 작품 중 적어도 1편 이상의 작품을 다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현황은 이들 작품이 문학 수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반면, 국어 교과서에서 이들 작품의 수록 정도를 살펴보면, 위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무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수록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고대가요의 중등 국어 교과서 수록 빈도와 교육과정별 분포³⁾

대상 작품	건국기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구지가			◇		●			
황조가			◇					
공무도하가			◇	○	○		○	

〈표 2〉에서 보듯,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들 작품이 제재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문중심교육과정의 성격이 강했던 제4차 교육과정에서 <공무도하가>, <구지가> 등이 수록되었을 뿐 대부분의 시기에서 고대가요는 다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곧 국어 수업에서 이들 작품이 제대로 교육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록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시기에 편향되어 있으며 그 빈

3) 민현식 외,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I, 서울대출판부, 2007, 270면. 표에 등장하는 기호 역시 위 책에 따른 것으로, ○는 중학교, ●는 고등학교, ◇는 중학교 국문학사 단원에 게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도가 차츰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4차 교육과정기에 집중되어 있어 5차 교육과정을 넘어서면서 다른 갈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⁴⁾는 지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구지가>의 경우 본문 제재로 수록된 경우가 한 번도 없는데, 이는 18종 문학 교과서 중 13종의 교과서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특히 <구지가>는 문학 교과서에서 본문 수록이 9종으로 다른 고대가요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과 견주어 보아도 국어 교과서에서 전혀 수록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고대가요 교육의 목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를 살펴보기로 한다.⁵⁾ 문학 교과서에서 높은 수록 빈도를 보인다는 사실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들 작품이 다루어지고 있는 맥락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이다. 고대가요를 제재로 다루는 교과서 대부분이 문학(하) 교과서에 이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과 같은 문학사의 단원에서 ‘국문학의 기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표 3〉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내용 체계⁶⁾

영역	내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4) 민현식 외, 앞의 책, 269면.

5) ‘제7차 교육과정’의 ‘문학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가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들 작품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대한교과서, 1997.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분석을 위해서 해당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 보았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의 성격’, ‘문학 활동’, ‘문학의 위상’, ‘문학과 삶’으로 구성되어 어느 정도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역	내용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 문학의 특질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 영역
(4) 문학의 가치화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은 문학의 본질이나 생산, 수용, 소통 등의 문학 활동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한국 문학사의 전통과 지향성 이해를 주된 목표로 하는 내용이다.⁷⁾ 이처럼 문학 교과서에서 고대가요는 문학사의 자장에 귀속되어 그 속에서 교육적 가치와 의의가 확보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분석은 이들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구지가>의 ‘학습 목표’ 또는 ‘학습 주안점’ 등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 작품의 창작 배경을 이해한다.
- 작품의 주술적 집단 가요의 성격을 이해한다.(한철우 외, 문학(하), 문원각)
- 원시 고대의 집단 제의에서 행해진 원시 종합 예술 속에 문학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주술적 기능과 상징성에 주목해 보자.(김윤식 외, 문학(하), 디딤돌)

고대가요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접근은 고대가요 교육 연구 담론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비록 현재와는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지만 당시 문학 교과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면서, <구지가>와 관련하여 “가야

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대한교과서, 2001, 314면.

문학의 유일한 자료로서도 주목되는 작품이다”라는 점을 학습 내용의 핵심으로 평가하는 것⁸⁾은 이 같은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구지가>의 교육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제안되기도 하였다.

- 가락국기의 전체적 문맥 파악하기
- 종합 예술체의 구체적 양상 찾아보기
- <구지가>와 배경 설화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가 알아보기
- <구지가>가 후대에 어떻게 다른 작품들에 영향을 끼쳤는가 알아보기⁹⁾

또한 고대가요 텍스트의 모호성은 의미 확정의 과제를 제기하는 바, 고대가요가 배경 설화와 결부되어 전해지는 특성에 주목하여 그 관련성 속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해석하려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고대가요 교육이 배경 설화 전체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점은 이 같은 전통과 맥락에서 연유한 바 크다.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 등이 제시되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배경 설화를 참고하여 백수광부가 물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추리하여 말해보자.

-
- 8) 양태순, 「고대가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논총』 Vol2, 서원대학교, 1998, 83면.
 9) 양태순, 앞의 글, 83면. 그밖에도 <구지가>의 학습 목표로 다음과 같이 6개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용호, 「<구지가>의 문학교육적 연구」, 동국어문학 Vol 3, 동국어문학회, 1989 참조.

1. <구지가>를 통하여 상대 미분화상태의 고전시가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시킨다.
2. <구지가>를 통하여 신화적 문맥 속에서 발견되는 상고 시대의 가요를 학습하여 한국적 서정세계의 원형을 이해한다.
3. <구지가>를 통해 제천의식에 따른 집단가요(Ballad dance)의 종합예술을 선행학습시켜 국문학의 발생을 유도학습시킨다.
4. <구지가>에서 <해가사>로 접목되는 시가의 전승과정 형태와 신화, 전설이 어우러진 서사문학과 관련성을 이해한다.
5. 상고시대의 무격사상과 토테미즘의 성격을 학습하여 상대 우리 민족의 예술관 및 민족전통성을 이해한다.
6. 고전시가로서 <구지가>를 올바르게 이해·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킨다.

- 배경 설화를 고려하지 않고 이 시가를 읽을 때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이 시가에서 배경 설화의 역할을 정리해 보자.

(홍신선 외, 문학(하), 천재교육)

이처럼 고대가요 교육은 배경 설화나 관련 기록 등을 통해 텍스트의 온전한 이해를 목표로 하며 그 교육적 가치는 문학사적 의의에서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학교육이 국어과 교육 일반의 목적과 성격, 즉 ‘창의적인 국어 사용’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 교육과정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문학교육은 “작품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고와 표현, 문화를 고려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¹⁰⁾으로 적시된 것과도 맞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과서에서 고대가요의 주요 내용은 언어 능력 혹은 언어적 사고 등과는 별개로 작품 자체나 배경설화, 또는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고대가요에 대한 평가론적 분석

고대가요 교육의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는 두 번째 방법으로, 국가 수준의 평가에서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출제된 문항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되짚어보는 방법인 셈이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의 평가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먼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대수능)의 경우 199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행되고 있으나, 그 기간 동안 고대가요는 단 한 편도 출제되지 않았다. 정철의 가사나 윤선도의 시조가 거듭 출제되는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다. 대수능의 언어 영역이 내세우는 목표와 지침에서 그동안 고대가요가

10) 교육부, 앞의 책, 301면.

출제되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볼 수 있다.¹¹⁾

일반 지침과 평가 영역별 지침

- 단순 암기에 의해 답할 수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주어진 문제 상황을 통해 문제를 추리하며 분석하고 탐구하여 해결하는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며,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포함하여 출제한다.

〈중략〉

내용 영역별 출제 범위

4) 읽기(문학)

읽기(문학)에서는 고전시가, 고전산문, 현대시, 수필,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이 지문으로 제시된다.

- 주제 의식, 서술 방식 등에 주의하며 다양한 문학 작품을 두루 읽기
- 인물의 성격과 심리, 사건의 진행 과정, 갈등의 본질, 작가의 태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사건과 배경,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며 읽기
- 작품과 작품 비평,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 등을 서로 관련지어 감상하고 문학사를 이해하기
- 작품에 나타난 언어의 함축적 의미와 화자의 심정 등을 추측하기
- 작품 속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파악하기
- 문학 작품이 주는 효용성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중략〉

언어 영역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관련

〈중략〉 국어 과목에 속하는 여러 과목(국어, 국어생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의 평가 목표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언어 영역의 두 가지 특성에 합치되는 부분만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가 목표가 될 수 있다. 언어를 통한 사고력의 측정에 부합하며, 문항 형식 면에서 선다형 형식으로 제한된 것만이 언어 영역의 평가 목표에 합당한 것이 된다는 뜻이다.

위의 지침과 출제 범위를 통해서, 고대가요가 고등 사고 능력이나 문학 감상 능력 등을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작품 속의 상황을 실제 상황과 연계’하거나 ‘문학 작품이 주는 효용성’ 등을 교수·학습하는 제재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고대가요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적 거리와 그에 따른 이질감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고대가요 텍스트 자체의 모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매뉴얼』, 사단법인 교육진흥연구회, 2005, 11~22면.

호성과 해석의 다양성은 일차적으로 정답 확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해석에 대한 ‘단순 암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수능이 내세우는 평가 취지와 목표와는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으리라 짐작된다. 고대가요의 모호성과 다의성으로 인해 해석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대수능이 대학 입시를 위한 국가 단위의 표준화 검사라는 특성, 그리고 이를 위해 선다형 문항으로 출제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¹²⁾

이러한 사정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이하 성취도평가)에서도 다르지 않다. 성취도평가에서도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고대가요가 평가 문항이나 제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지 못한 채 선택과목인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까닭에, 초6, 중3, 고1과 같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취도평가에서 이들 작품을 출제하는 데에 원천적인 어려움이 있다.¹³⁾ 그런데 성취도평가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육 목표 및 성취 기준에 비추어 학생의 도달 정도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정착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성취도평가에서 고대가요가 배제되는 상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국어과 교육과정, 특히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기간의 성취 기준 혹은 도달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 제재로서 고대가요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인식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¹⁴⁾

12) 한 분의 심사위원께서 수능의 경우 단형의 시가를 대상으로 3~4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비슷한 형식적 분량을 보이는 시조나 한시와 같은 단형의 시가가 다른 작품들과 함께 여러 번 출제된 데에서 보듯, 단순히 단형 시가라는 점만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라고 본다.

13) 작년까지 성취도평가 대상 학년은 초6, 중3, 고1이었으며, 2010학년도부터 초6, 중3, 고2로 변경되어 시행되었다. 고2를 대상으로 시행된 올해 성취도평가에서도 고대가요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

14) 참고로 중등교사신규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에서도 고대가요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10여 년 간의 임용시험을 분석하면, 2006학년도에 <구지가> 한 작품이 유일하게 출제되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철의 시조 <훈민가>, 가사

III. 고대가요 교육 내용 설계의 방향

고대가요가 국어교육에서 의미있는 교육 내용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적 자질의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의 교육적 자질은 국어교육이 과제로 하는 ‘언어 능력’과 관련된 것이면서,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국어교육의 목표와 이를 대표하는 ‘언어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異論)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정신 현상을 관계적으로 매개하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언어의 역동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⁵⁾는 주장에 바탕을 두기로 한다. 이러한 인식과 접근 태도는 고대가요가 현존 최고(最古)의 문학으로, 국문학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실체적 가치의 문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즉 국문학의 기원 혹은 해석의 과제로서 살펴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고대가요가 인간의 언어활동으로서 어떠한 모습과 기능을 보여주는지에 주목하여 그 수행과 경험의 문제를 제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대가요의 교육 내용은 일차적으로 고대가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자질에서 찾아져야 하지만, 이것이 언어활동으로서 유의미한 것이라는 입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국어교육으로 구성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대가요의 특질을 도출하면서, 그것이 언어활동으로서 갖는 의의도 함께 탐색하기로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고대가요 교육 내용의 전체적 틀을 언어의 수행과 경험의 차원으로 설계하고, 이들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기획하기로 한다. 이같은 방향 설정은 첫째 국어교육의 내용 영역을 ‘지식’, ‘수행’, ‘경험’, ‘태도’로 보는

<우부가>와 함께 제시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문항이 그것이다. 평가 대상이 일반 학습자가 아닌 교사 후보자인 까닭에, 자세한 분석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15) 박인기, 「국어교육학과 인문학적 상상력」, 윤영천 외, 앞의 책, 119~120면. 위 연구에 서는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언어 사용의 전략(기능), 체계(문법), 문화, 이념, 예술, 사고, 활동 등 다양한 의미 층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점¹⁶⁾을 원용한 것이면서, 둘째 그동안 고대가요 교육이 사실, 해석, 지식의 측면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에서 새로운 교육 내용과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 경험의 영역을 특화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수행과 경험의 문제는 고대가요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기능한다.

먼저, 언어를 통한 인간 사고의 수행 문제를 제안한다. 국어교육에서 수행의 문제는 언어가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언어가 과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흔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로서 말을 하고 글을 쓰며 소통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언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문제를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대한 모색 과정으로서 주체의 ‘사고’ 활동을 이룬다는 점에 있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수행을 행동의 구체적 방법이나 절차로 인식하는 것을 경계한다. 언어활동에서 수행의 문제를 대상에 대한 언어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문제 인식과 해결의 과정에 작용하는 주체의 사고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문학 작품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언어적 대응의 한 모습에 해당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예술적 가치를 재현하는 작업이면서, 동시에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는 작자의 사고 방식이 언어로 구현되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문제는 인간의 사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문학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구체화·조직화하는 의식적인 사고 과정에 해당한다.¹⁷⁾ 여기서

16) 언어가 사실(fact), 과제(task), 의미(meaning), 정체성(identity)의 본질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어교육 내용이 지식(knowledge), 수행(performance), 경험(experience), 태도(attitude)의 네 가지로 구성될 수 있음이 제안된 바 있다. 김대행,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2008, 69~114면 참조.

17) 이처럼 문학을 사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텍스트의 구성을 사고 과정으로 풀어낸 연구로, 최홍원,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8 등이 대표적이다.

언어활동의 수행과 사고 사이의 접점이 확인된다.

둘째,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경험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어교육, 문학교육에서 경험의 중요성과 그 의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교육이 곧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간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¹⁸⁾에 대응된다고 보고, 교육 전체의 궁극적 목표와 지향점을 경험에서 찾기도 한다. 특히 문학교육에서는 실체에 대한 편향에서 연유하는 기존의 지식 위주의 교육관과 상대되는 것으로서, 문학 작품과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통한 가치있는 경험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문제 사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작자 나름의 인식과 대응의 과정을 탐색하는 경험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문학성에 대한 심미적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떠한 문제를 대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를 매개로 한 주체의 사고 과정을 탐색하는 것은, 곧 언어를 매개로 인간의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통하여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를 경험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과 사고, 그리고 경험이 다시 만나게 된다.

이처럼 고대가요에서 사고 방식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경험하는 것은, 고대가요가 특수한 하나의 예술적 기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언어적 대응에 해당하는 사고의 산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고대가요는 여타의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문제 사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작자의 대응 과정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는 사별과 극복, 이별과 자기 인식, 요구와 드러냄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각각의 과제로 하고 있다. 사고와 경험의 교육은 고대가요 속의 문제 사태에 대한 대응 양상을 살펴 보고,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태도와 세계관을

18) 송도선, 『존 듀이의 경험교육론』, 문음사, 2004, 164~169면.

정립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고대가요가 갖는 근원성, 역사성의 특성과 자질¹⁹⁾은 고대가요 텍스트 속 문제 사태와 대응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는 전통으로서의 의미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고대가요는 오늘날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대응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 또한 갖고 있다. 따라서 고대가요 교육의 주요한 내용으로, 이 같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길항 속에 존재하는 사유 방식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본질적 문제를 경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에 이르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IV. 고대가요 내용 설계 1 : 언어를 통한 인간 사고의 수행

1. 언어를 통한 심리적 해소—〈공무도하가〉

〈공무도하가〉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 중에서 작자 문제는 해석 구조의 중층성과 맞물려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경 설화에 따라 백수광부(白首狂夫)의 아내를 작자로 보면서도, 한편에서는 남편이 죽는 광경을 보고 아내가 공후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뱃사공인 괭리자고(霍里子高)의 아내 여옥(麗玉)이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논쟁이다.²⁰⁾

19) 고전 표현의 가치가 ‘근원성, 역사성, 정태성’으로 설명된 바 있다.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1995, 249~253면.

20) 그밖에도 <공무도하가> 작자와 관련하여 일차, 이차, 삼차 작자 등을 설정하기도 하고, 『금조(琴操)』의 기록에 따라 ‘괭리자고’로 보기도 하며, 민간 설화로 규정하여 전승 주체인 서민을 작자로 보기도 한다. <공무도하가>를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작자 문제 이외에도 노래 이름, 장르, 국적, 지명, 등장인물, 창작 시기, 배경 설화, 노랫말, 작품 의의 등이 있다. 이같은 쟁점의 정리가 한 편의 연구물(조기영, 「공무도하가의 주요 쟁점과 관련 기록의 검토」, 『인문과학연구』 Vol 1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이 될 만큼,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작자 규명에 대한 논의를 답습하는 대신, 이러한 문제가 문학의 기능과 이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주목하기로 한다.²¹⁾ 즉 <공무도하가>의 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의 제기 자체가 이 작품이 그만큼 다른 양식보다 서술자, 내재된 작자, 독자 등의 관계가 매우 가깝게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배경 설화에서 보듯, <공무도하가>에는 백수광부, 백수광부의 처, 꺾리자고, 여옥 등의 인물이 다양하게 등장하며, 이들은 작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노래의 등장인물, 지시 대상, 작자, 화자, 청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도하가> 노랫말 자체가 연행자 자신의 투영으로 나타나는 까닭에 여옥의 처가 연행자이면서도 작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이는 관점을 달리하면 문학의 적극적 기능과 효용에 대한 자료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화자와 노래하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발화 내용 또한 현실과 거리를 두지 않는 속성, 즉 노래와 현실의 무거리성(無距離性)의 바탕에는 ‘공통된 심리적 체험성’과 욕망의 기저가 자리잡고 있고 따라서 공감에 의한 구체성과 현실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²²⁾ 화자이면서 내적 작자이고 또한 독자이기도 한 연행자들은 노래의 문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심리적 동화의 획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도하가>에 나타난 사별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볼 때 ‘공통된 심리적 체험’이라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별의 문제가 인간 존재의 보편적, 근원적 경험으로서의 속성을 갖고 있으며²³⁾ 이때의 ‘공통된 심리적 체험’은 인간 존재가 갖게 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공통된’, ‘공유된’ 체험, 그리고 언어를 통한 간접적인 가공의 체험으로서 ‘심리적’ 체험을 뜻하는 것으로

21) 서유경 또한 공무도하가의 작자 규명 문제가 결론을 찾기 어렵지만, 오히려 문학교육적으로는 다양한 표현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작품 해석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가능성을 제고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서유경, 「『공무도하가』에 대한 표현 교육론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123면.

22)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99~100면.

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경험 영역의 교육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도하가>의 이 같은 특성에 따라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수해를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사별이라는 현실적 문제 사태와 갈등에 대해 주체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해 나가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墮河而死]’와 같은 ‘돌이킬 수 없음’이라는 사별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학과 언어의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가신 임을 어이할꼬[當奈公何]’의 탄식과 원망의 애절한 울부짖음만을 표출할 뿐이며,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문제 대응이나 해결로는 보기 어렵다. 현실 상황의 변화나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과 절망의 상황에서 노래가 등장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문학과 노래가 문제를 바꾸거나 해결할 수는 없어도, 언어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됨을 뜻하며, 이러한 해결 방식은 문제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처방과 조치와는 다른, 심리적 해소와 위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래가 갖는 심리적 해소와 위무의 기능은 다양한 국면에서 확인되는 바, 예컨대 신흠(申欽)의 <노래 삼긴 사람>의 시조는 이 같은 노래의 기능을 제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간은 삶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갈등과 그에 따른 시름을 노래로 불려서 풀어낸다. 이때의 노래는 타인을 향한 전언보다는 자신을 위무하기 위한 언어 행위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언어의 또 다른 존재의 의의와 기능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노래의 주요 기능, 즉 슬픔을 치환하여 자신의 것으로 대리 체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심리적으로 위무하는 것을 <공무도하가>의 교육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문학의 기능이면서 또한 노래의 존재 의의이기도 하며, <공무도하가>가 갖는 근원성의 주요 자질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상대적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황조가〉²⁴⁾

〈황조가〉의 구조상 특질은 무엇보다도 대상과 주체의 병렬적 제시에서 찾을 수 있다. 피꼬리와 주체의 상황을 나열하면서, 그 차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병렬(並列, parallelism)은 ‘시에서 등가적으로 상응하는 요소들이 나란히 짝지어 배열되는 방식’²⁵⁾으로서, 민요, 시조, 가사, 판소리 등 구비시가는 물론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시가의 중요한 시적 규범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²⁶⁾ 병렬은 의미상 동일한 차원에 놓이는 여러 목록을 나열하는 카다로그(catalog)식 전개를 가져옴으로써, 의미의 풍부한 수식을 이루고 장식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외적 형식으로서 병렬 구조의 발견과 확인에 머무르기보다는, 이 같은 병렬의 형식이 인간의 어떠한 사유 구조를 보여주는 것인지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는 병렬의 문제를 ‘행내 병렬’과 ‘행간 병렬’ 등 병렬이 등장하는 모습에 따라 형태적으로 구분하여 시가의 작시 및 구성 원리로 살펴보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즉 병렬이 통사적 패턴의 반복적 배열을 ‘형식적 특질’로 하면서도, 동시에 비교나 대조와 같은 의미상의 대응을 ‘내용적 특질’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병렬은 반복과 달리 서로 대응되는 것 사이에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대상의 인식과 의미 구성을 위한 하나의 사고 작용이 외현화되어

24) 수행으로서 〈황조가〉의 교육 내용 설계 부분은 고전시가 작품의 교육 내용 범주를 〈황조가〉를 통해 실증하고자 한 류수열의 연구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다만, 수행을 “고전문학 작품에 구현된 독특한 발상과 표현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표현을 만들어가는 것”(류수열,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2008, 33면)으로 보면서 지식, 원리 등을 활용하는 표현, 활동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고의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관점과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

25) 이주영, 「가사에 나타난 병렬 형식 경험의 교육적 의의」, 『문학교육학』 제24호, 2007, 269면.

26) 병렬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는 김수경·정끝별, 「구조와 해체의 수사학: 병렬」, 성기옥 외,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2004, 243면에 정리되어 있다.

나타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황조가>의 ‘피꼬리’는 그 대상의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인식을 불러오는 대응물로서 기능한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⁷⁾ 피꼬리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상대적 차이가 나란히 배열됨으로써, 화자의 외로움을 환기시키면서 짝을 잃은 슬픔과 외로운 처지라는 자기 인식과 이해가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피꼬리와 나는 표면상 대립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이 속에는 ‘배우자와의 관계’라는 공통된 상관축 또한 내재되어 있다.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할 때 상대적인 존재가 자연스럽게 전제되며, 이러한 존재를 통해 자기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 확인된다. 다만 병렬이 크게 유사 병렬과 대립적 병렬, 혹은 전개적 병렬과 대립적 병렬 등으로 구별되듯이,²⁸⁾ 상대적인 존재와 나의 관계는 의미상으로 유사일 수도 있고 또한 대립적 대응일 수도 있다. <황조가>에서 피꼬리는 ‘외로움[獨]’의 처지에 있는 나와는 상반되는, ‘다정히 즐기[相依]’ 존재를 대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충죽과 곁핍의 상반된 상황이 가져다주는 상대화로 인해, 자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고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인간의 유한성이 상대적 대상인 자연의 무한성과 병렬될 때, 그 주체는 자연히 비극적 존재로 인식되기 마련이라는 설명에 비추어본다면,²⁹⁾ <황조가>에서 피꼬리라는 대타적 존재는 나의 부정적인 처지를 일깨우는 효과

27) 피꼬리의 의미를 두고서도 국문학의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유리와의 ‘유리’가 ‘피꼬리’임을 밝혀 작품을 새롭게 해석해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것이 인간 사유의 어떠한 측면을 반영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련 자료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연구물은 본 연구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상대적 대상”으로도 볼 수 있다.

28) Alex Pleminger,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599면 참조. 피네간(Finnegan) 또한 “병렬이란 상이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 의미의 반복이 때로 동질적인 되풀이를 이루거나 대립적인 되풀이를 이룰 때 존재한다”고 설명하여 의미상의 동질성/대립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Ruth Finnegan, *Oral poetry : It's nature, significance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참조.

29) 김대행, 『한국시의 전통 연구』, 개문사, 1980, 133면.

적인 사유 장치라 할 수 있다. 고려가요 <동동>에 등장하는 피꼬리 역시 <황조가>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상대적 대상으로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은 수없이 많다. 다음 시조의 경우, ‘구름’과 ‘비’, ‘가다’와 ‘오다’가 서로 대응하면서 병렬을 이루지만, 이들과 나를 긍정과 부정으로 재차 대응시킴으로써 또 다른 병렬이 발생하는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도 구름과 비라는 상대적 대상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인식에 도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구름은 가건마는 나는 어이 못가노고
 비는 오건마는 님은 어이 못 오노고
 우리도 비 구름 갓타여 오락 가락 흐리라. (歌曲源流 國樂院本 157)

이처럼 상대적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는 <황조가>뿐만 아니라 고전시가 전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사유 구조로, 여기서 고대가요의 보편성과 근원성이 재차 확인된다. 앞에서는 대상인 세계를, 그리고 뒤에서는 시적 자아를 제시하고 이들을 역동적 긴장 관계에 놓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체의 자기 이해를 가져오는 사유 구조는 고전시가를 대표하는 표현 방식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사유 구조인 것이다.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 사유의 전형적인 한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황조가>의 교육 내용으로서 상대적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의 문제를 제안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3. 불러들이기를 통한 요구의 구체화—〈구지가〉

당면한 과제, 경험 등을 의미있는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언어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화가 표현과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주체는 대상과 목적 이외에도 상황, 맥락,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략을 모색

하게 되는데, <구지가>에서 거북의 등장 또한 이러한 말하기 전략의 일환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경우 거북은 실제 사물이기보다는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불러들인 대상으로, 사물을 통한 생각의 구체화라는 효과를 대표한다.³⁰⁾

실재가 아닌 대상이나 사물을 불러들이는 발화 행위가 <구지가>와 같은 고대가요에서 특별히 구현될 수 있었던 바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카시러(Cassirer)에 따르면, 원시인의 언어는 자연과 인간, 신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었으며, 언어를 매개로 대상과 연결되고 연속감과 일체성 형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³¹⁾ 동일한 관점에서 바필드(Barfield) 역시 원시시대의 언어는 한마디로 ‘비유의 시대(metaphorical period)’였으며, 그들의 의식은 대상을 ‘그것(es)’이 아닌 ‘너(du)’로 받아들이는 의인화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음을 밝혔다.³²⁾ 이들은 모두 언어가 인간의 사고 및 의식과 긴밀히 관계되면서 대상과 밀착되는 특질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비추어본다면, <구지가>에서 거북이나 머리의 존재도 단순히 경험이나 사물의 차원에서 대상을 실제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식, 사유와 밀착된 대상으로, 이를 매개하고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다면, 국어교육 내용으로서 <구지가>는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구지가>의 전체 의미와 ‘거북’ 또는 ‘머리’가 상징하는 바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렴될 수 있다.³³⁾ 무엇을 향한 요구 혹은

30) 김대행,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1995, 232~236면 참조

31)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II, 김준오 『시론』, 삼지원, 2002, 43면 재인용.

32) Owen Barfield, *Poetic Dic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73, 70면 참조.

33) <구지가>의 구조를 요구와 위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품 전체의 의미를 ‘요구’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해석의 다양성은 대체로 요구의 내용, 즉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설명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龜’와 ‘首’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임재욱, 「구지가에 나타난 신격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이해」, 『국문학연구』 Vol 19, 국문학회, 2009, 113~115면에 그동안의 연구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은 무엇에 관한 요구의 과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와 같은 발화 방식에 대한 탐색을 요청하는데, <구지가>는 이러한 과제 해결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언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구지가>의 구조는 요구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말하기 전략에 따른 것으로, 거북이라는 대상은 이 같은 당면 과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활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 유의한다면, <구지가>의 언어 표현 구조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전략 수행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불러들이기를 통한 사고의 구체화³⁴⁾라는 효과를 갖는다. 수사적 문체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구체성은 “무엇인가를 눈앞에 세우는 원칙”³⁵⁾으로, 그 자리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수용자의 머리속에 강렬한 상상의 그림을 그리는 효과로 설명된다. 물론 이 같은 발화 효과상의 장점 이외에도 거북과 같은 대상을 감각스럽게 등장시키는 이유를 비약에 따른 즐거움의 효과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인간의 정신이 한 사실에서 다른 사실로 갑자기 비약하는 데서 적지 않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효과를 말한다.³⁶⁾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약진하는 발화 속에서 상상력이 촉진되고, 그 과정에서 흥미가 발생한다는 데 주목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어진 문맥의 앞뒤로 미루어서 거북의 등장이 상당히 이질스럽다는 인식”³⁷⁾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표현과 사유 구조가 모든 수사법의 바탕 기제이면서 전언을 형상화하는 대표적인 방식에 해당한다는 점은 또 다른 교육적 의의에 해당한다. 비유의 기제가 본래 똑바로 말하지 않고 일부러 예들려서 완곡하게 말하는 방법에 두고 있으며, 이처럼 예들려서 말하는 것은 직접 드러

34) 김대행, 앞의 책, 232~236면 참조.

35) H. F. Plett,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lyse*, 양태종 역,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2002, 66면.

36)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58면. 다만, 배경설화에서 <구지가>가 집단적 노래로서 불러졌다는 기록에 의존해 볼 때, 거북을 감각스러운 등장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7) 김열규, 「구지가 재론」,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1992, 3면.

내놓고 똑바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³⁸⁾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요구의 대상과 내용을 직접 언술하는 대신 불러들인 대상을 통해서 에둘러 표현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표현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근본 기제에 있어서도 다른 대상에 견주거나 빗대어 드러내는 비유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비유의 기능이 관념을 생생하게 그리고 힘있게 만드는 구실에 있다는 설명은 불러들이기를 통한 사고의 구체화와 비유가 기능과 기제 면에서 서로 유사함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진리의 표현과 전달이라는 과제의 차원에서 비유의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구지가>의 거북은 문학 작품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장식 차원이 아니라, 표현 전략과 수행이라는 인간 사고의 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구지가>의 거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교수·학습하여 그 내용을 이해·암기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 내용이 마련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표현 전략의 문제들, 그리고 대상을 통해 사고를 구체화하는 활동 등을 다룰 수 있다.

V. 고대가요 내용 설계 2

: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 문제의 경험

1. 인간 존재의 보편적 문제 경험 : 죽음과 이별의 문제

— <공무도하가>, <황조가>

자신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고통에 대해 스스로 물음을 제기하고 고통

38) 김옥동, 앞의 책, 35면. 이 책에 따르면 ‘비유’를 뜻하는 영어 ‘트로포프’의 기원이 그리스어 ‘트로페’에 있으며, 이는 ‘구부러짐’ 혹은 ‘뒤틀림’의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의 원인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언어가 발생한다.³⁹⁾ 고대가요 또한 이같은 고통의 과정과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로서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고통을 언어로 온전히 다 드러내지 못하는 근원적인 한계를 갖는 만큼, 고대가요에 나타나는 표현 또한 주체의 내적 심리와 사유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대가요를 통해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고통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을 만나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가요가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루고 있는 문제가 사별, 이별과 같은 인간의 근본적·보편적 문제 사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 문제가 모두 인간의 결핍과 충족이라는 존재론적 한계와 욕망에서 기인하여 돌아킬 수 없다는 특성을 갖는 데 있다.

<공무도하가>, <황조가>의 문제 사태는 피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연유한다. 야스퍼스(K. Jaspers)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 안에 있는 존재이며 (in Situation Sein)”, 그 상황은 일정한 한계를 가진 상황이다. 이때의 한계 상황이라 함은 고통, 전쟁, 죽음, 책임 등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들은 곧 인간 실존을 대표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공무도하가>, <황조가>는 인간이 삶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한계 상황의 운명을 지닌 존재이고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인간의 문제가 비롯됨을 깨닫게 해주는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고통의 정서를 ‘한(恨)’이라는 말로 다양하게 풀어내는 것은 그것이 갖는 집단적, 민족적 성향에 주목한 데 따른 것이며, ‘좌절’과 ‘체념’, ‘승화’와 ‘달관’ 등도 이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르게 되는 정서와 태도를 설명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공무도하가> 작품 세계 전반을 규정하는 죽음의 문제는 한계 상황의 대표적 표지라 할 수 있다. 사실 생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죽음은 생명의 주기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자연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삶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기간인 만큼 헤겔이 말한 바와 같이 삶과 죽음은 서로의 존재 조건에 해당한다.⁴⁰⁾ 그러나 인간은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한

39) 강영욱, 「고통」, 우리사상연구소편, 『우리말철학사전』 5, 지식산업사, 2007, 62~63면.

40) 죽음의 문제를 삶의 관련성 속에서 성찰한 여러 명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장자는

다는 필연적 사실에 대해서는 수긍하면서도, 정작 자신 혹은 자신과 관계되는 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특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는 <공무도하가>에서 “當奈公何”로 노래되듯이, 사자(死者)와 생자(生者)간의 영원한 이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죽음은 인간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는 필연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세계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는 일이 필요하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으며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불가능함, 즉 나의 모든 가능성이 유한함”⁴¹⁾을 경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문학은 인간이 처한 현실을 극한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삶의 한계를 더듬어보는 일”⁴²⁾이라 할 수 있다.

이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황조가>에서 사랑하는 이의 떠남은 ‘삶의 지속에 대한 불안’을 촉발하는 작용을 한다. 작품 전체의 지배적 정서가 상실감과 고독감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임의 부재로 인해서 삶의 전체 평행이 깨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별을 계기로 인간은 무한한 욕망과 그러한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처럼 죽음과 이별의 문제는 인간 존재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험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안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고대가요의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필요성은 경험의 이러한 보편성과 근본성에서 찾아진다.

특히 문학 감상이 경험으로서 유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텍스트에 등장하는 문제 사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텍스트가 제시하는 문제 대응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가치 판단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경험의 대상은 일차적으로 텍스트 속 죽음과 이별의 문제 사태이지만, 의미있는 경험의 형성은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을 가치 판단하

“삶은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이요, 죽음이란 삶의 시작이니 어찌 그 근본 이유를 알 수 있으리요”라고 하였으며, 하이데거 또한 인간을 “죽음을 향해 있음”으로 논한 바 있다.

41)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1998.

42) 김우창, 「문학의 즐거움과 쓰임」, 김우창 외, 『문학의 지평』, 고려대 출판부, 1991, 11면.

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능해진다. <공무도하가>나 <황조가>에는 죽음, 이별에 대한 각각의 대응 방식이 나타나는데, 국어교육에서 경험이라 함은 이 같은 대응 방식의 이해 및 습득에 그치지지는 않는다. 이들 텍스트에 제시되는 대응 방식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문학 경험이 갖는 중요한 특질이라 할 수 있다. 텍스트 속 대응 방식에 대해 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의미있는 경험이 형성되는 것이다.

특히 남편의 죽음에 대해 <공무도하가>가 제시하는 ‘뒤따라 죽음’과 같은 대응 방식은 현재의 학습자에게 상당히 이질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다. 한 비평가의 지적대로 독자의 현실 정서와 시인의 문학적 정서 사이에 발생하는 곤혹스러운 괴리가 오늘날 문학이 대면하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라고 한다면,⁴³⁾ <공무도하가>와 같은 고대가요는 이 같은 곤혹스러운 괴리가 가장 극대화되는 작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질성과 그에 따른 곤혹스러운 괴리가 오히려 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체험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적극적 가치 판단을 불러오는 것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통의 정서(“눈물을 흘리며 울음을 삼키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등에 집착하여 이를 ‘지금 여기’의 독자와 곧바로 연결짓기보다는, 오히려 이질성 내부에 존재하는 심층의 공통성과 보편성, 예컨대 남편을 잃은 여인의 한과 슬픔⁴⁴⁾ 등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고대가요의 경험은 화자가 문제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과 방식, 그에 따른 대응의 특성을 발견하고 살펴봄으로써,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오는 것을 과제로 한다. 특히 이질성과 곤혹스러운 괴리 속에는 다양한 인간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 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게 만드는 가능성

43) 도정일,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1994.

44) <공무도하가>를 신화나 신비한 주술 등과 관련지어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정하영은 이 작품의 의미를 남편을 여인 아내의 한과 슬픔을 곡진하게 그리고 있는 데서 찾고, 여기서 시대와 지역을 넘어선 우리 문학의 전통을 발견하고 있다. 정하영, 「<공무도하가>의 성격과 의미」,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1992, 22면.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고대가요 교육은 텍스트 속 문제 사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독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정립을 도모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가능해진다.

2. 인간 문제의 근원에 대한 경험 : 결핍과 충족의 변화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인간의 갈등과 불안은 삶이 추구하는 균형감을 상실했을 때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⁴⁵⁾ 이전까지 유지되던 삶의 균형이 깨어지고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화자의 의식 속에 갈등과 불안이 인식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평정을 깨뜨리는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갖게 되고, 고대가요 속에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 답은 현재 상황을 불러일으킨 변화의 소용돌이가 무엇이고, 이전의 상황과 비교할 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욕망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 고대가요 경험이 갖는 또 다른 교육적 의의는 이처럼 인간 문제를 야기하는 근원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삶의 균형이 깨어진 것은 무엇인가의 변화가 생긴 데서 비롯되며, 여기서 욕망이 발생한다. ‘인정욕망(desire of recognition)’을 강조한 헤겔의 욕망 개념, ‘환상적 원망충족(wish fulfillment)’으로 대표되는 프로이트의 욕망개념, 그밖에 생리적 욕구와 언어적 요구 간에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을 뜻하는 라캉의 욕망개념 등은 비록 그 강조점에서 차이를 갖고 있을지라도 모두가 인간의 욕망을 결핍에서 기인하는 보고, 결핍된 것을 획득하려는 심적 역동으로 규정하는 공통점을 보인다.⁴⁶⁾ 이처럼 욕망이란 현실적 대상의 결여로, 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결핍된 어떤 것을 간절히 추

45) F. Riemann, *Grundformen der Angst : eine tiefenpsychologische Studie*. 37. Aufl, 전경애 역, 『불안의 심리』, 문예출판사, 2007.

46) 전경갑·오창호, 『문화적 인간 인간적 문화』, 푸른사상, 2003, 340면.

구하는 심적 역동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러한 결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에 따라 정서 유발의 근원을 구별할 수 있다. 정서 유발의 두 유형으로 ‘결손에 의한 평정의 파괴’, ‘잉여에 의한 평정의 파괴’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전자의 경우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앗아버림으로써 평정이 파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추구하는 데서 평정이 깨어지는 것을 말한다.⁴⁷⁾ 이러한 관점을 원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핍이 ‘충족’에서 ‘결손’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인가, 혹은 ‘결손’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것인가의 차이에 주목하기로 한다. 어느 경우이든 정서의 발생은 이 같은 결핍과 충족의 관계 변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대가요에서 <공무도하가>와 <황조가>의 경우 이별의 문제를 다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곧 임과의 이별이 결손을 야기함으로써 평정을 깨뜨리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충족에서 결핍으로 변화된 상황이 정서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지가>의 경우 본래 부재, 결핍의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황의 출발점이 앞의 작품들과는 차이가 있다. 결핍에서 충족으로 회귀하는 상황의 차이가 <공무도하가> 또는 <황조가>와는 구별되는 정서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작품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무도하가>와 <황조가>의 경우에는 1행과 2행에서 모두 서정적 자아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고, 이어 3행과 4행에서 이러한 외적 상황에 대한 자아의 심정이 표출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예컨대 <공무도하가>를 보면, 서정적 자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백수광부가 물에 들어가는 상황이 제시됨으로써 임을 빼앗기게 되는 결손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빼앗김이 결핍을 야기하는 근원이 되면서, 작품은 이같은 외적 상황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심정을 표출하는 구조로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47) 김대행,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1999, 51~56면.

반면, <구지가>의 경우에는 본래 결핍된 상황에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출발하는 만큼, <공무도하가>나 <황조가>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취하게 된다. 즉, 서정적 자아의 적극적 개입과 행위가 호칭, 명령, 가정, 위협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 문제 발생의 근원, 즉 결손과 충족의 관계 변화 양상을 고대가요의 표현 구조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

그런데 정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욕구의 발생이 상당 부분 현실 상황의 변화와 개선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까닭은 인간 삶의 조건이 갖는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보듯 개별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근원에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H. Arendt)는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자연의 필연성으로부터 벗어난 영속적인 자신의 세계”⁴⁸⁾를 인간 실존의 한 조건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연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존재의 한계를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대가요의 결핍과 충족의 문제는 모두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연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활동에는 언제나 기존의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려는 끊임없는 긴장이 자리잡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의 지적처럼, 그가 현실적으로 있는 모습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그가 현재 있는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모습의 전체가 아닌 것처럼,⁴⁹⁾ 이 같은 유한성과 초월성 사이에서 인간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고대가요의 경험이 중요한 까닭은 경험의 대상이 되는 문제 자체의 근원성 이외에도,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에서 그 문제가 비롯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고대가요는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초월

48)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한길사, 1996, 35면.

49) Battista Mondin, *Antropologia Filosofica*, 허재윤 역, 『인간 :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1996, 120면 재인용.

적 욕망의 모습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지를 살펴보게 한다는 의의가 있다.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깨달음에 이르고, 인간 존재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인간 삶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고통은 인간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보다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로 인해 수동적으로 당하게 되는 측면이 크다.⁵⁰⁾ 이런 점에서 본다면, 고대가요의 경험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로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VI. 맺음말

고대가요에 대한 실체론적, 문학사적 접근은 작품의 규명, 해석과 같은 국문학의 여러 연구 성과를 가져온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대가요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는 상황을 야기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면도 있다. 이는 고대가요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와 교육적 의의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작품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곧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학습자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에서는 해당 내용이 인간다운 성장과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밝혀져야만 하며, 이 같은 효용성과 가치가 확보될 때 비로소 교육 내용으로서 구성이 가능할 수 있다. 고대가요와 관련하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고대가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작품과 배경 설화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해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보편적인 차원과 수준에서 사고와 경험의 요소만을 도출한 것에 대한 변명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를 통한 인간 사고의 수행과 언어를 매개로 한 인

50) 독일어의 ‘고통(Liden)’이 ‘당한다(leiden)’는 말과 동일하고, 영어의 ‘수동적(passive)’이라는 말도 ‘고통(passion)’과 그 어원이 같은 데서 보듯, 축어적으로도 ‘고통’이 ‘수동적으로 당함’을 내포하고 있다.

간 문제의 경험을 구체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안하였다. 이 같은 교육 내용은 고대가요가 갖고 있는 수많은 가치와 교육적 자질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고대가요만의’ 고유한 자질에서 교육 내용을 도출하려 하였고, 이를 언어 사고와 인간 문제의 경험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다양한 국면 중에서도 ‘언어 사고의 수행’에 특히 주목했던 까닭은 사고의 문제가 국어교육의 중요한 과제로서, 고대가요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찍이 제6차 국어 교과서에 <차마설(借馬說)>이 수록될 수 있었던 이유, 배경과도 유사하다. <차마설>은 문제 발견 및 아이디어 생성의 주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교육적 판단에 따라 언어활동과 사고의 문제에 대한 교육 제재로서 재발견되어 채택·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인간 문제의 경험’을 통해 인간다움에 대한 성찰을 제기한 것은, 국어교육의 목표가 어떠한 하는가에 대한 반성과도 관련된다. 국어교육이 내세우는 언어 능력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측면에 머무르는 것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의사소통의 실용 기능 이상의 인문학적 가치와 요소를 담아야 한다는 생각⁵¹⁾에 따라 인간다움의 문제에 대한 경험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설계한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의 측면에서 고대가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이 앞섰던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을 실증하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제안하고 탐색하는 데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작품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구체적 교육 내용의 구안과 상세화는 향후 과제로 남긴다.*

51) 박인기, 앞의 글, 137면.

* 본 논문은 2010. 6. 30. 투고되었으며, 2010.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명혜(2004), “<황조가>의 의미 및 기능—<귀지가>, <공무도하가>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Vol 11, 온지학회.
- 고정희(2007),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교육과학기술부(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대한교과서.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 대한교과서.
- _____ (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대한교과서.
-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07-79호, 대한교과서, 2007.
- 김대행, 『시가지학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91.
- _____ (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 출판부.
- _____ (1999), 『노래와 시의 세계』, 역락.
- _____ (2008), 『통일 이후의 문학교육』, 서울대출판부.
- 김우창 외(1991), 『문학의 지평』, 고려대 출판부.
- 김옥동(1999), 『은유와 환유』, 민음사.
- 김준오(2002), 『시론』, 삼지원.
- 김홍균(1992),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현대비평과 이론』 3집, 한신문화사, 1992 봄.
- 도정일(1994), 『시인은 숲으로 가지 못한다』, 민음사.
- 류수열(2008), 『고전시가 교육의 구도』, 역락.
- 민현식 외(2007), 『미래를 여는 국어교육사』 I, 서울대출판부.
- 백영정·병욱·선생10·주기추모논문집간행위원회 편(1992), 『한국고전시가작품론1』, 집문당.
- 서유경(2007), ““공무도하가”에 대한 표현 교육론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14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 성기옥 외(2004), 『한국시의 미학적 패러다임과 시학적 전통』, 소명.
- 양태순(1998), “고대가요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논총』 Vol2, 서원대학교.
- 우리사상연구소편(2007), 『우리말철학사전』 5, 지식산업사.
- 윤영천 외(2009),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 이영태(2007), ““공무도하가”의 배경설화에 나타난 광부 처의 행동”,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33집.
- 이용호(1989), “<구지가>의 문학교육적 연구”, 『동국어문학』 Vol 3, 동국어문학회.
- 이주영(2007), “가사에 나타난 병렬 형식 경험의 교육적 의의”, 『문학교육학』 제24호.
- 임재욱(2009), “구지가에 나타난 신격에 대한 이중적 태도의 이해”, 『국문학연구』 Vol

19, 국문학회.

장덕순 외(1986),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정병욱(1996), 『증보판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정병현(2003), “백수광부의 아내와 유리왕”,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대 출판국.

조기영(2004), “공무도하가의 주요 쟁점과 관련 기록의 검토”, 『인문과학연구』 Vol 12,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조동일(1990), 『한국문학통사1』, 지식산업사.

조하연(2010), 「문학 감상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조희정(2006), “고전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집, 한국어교육학회.

최지현(2006), 『문학교육과정론』, 역락.

최홍원(2008), “시조의 성찰적 사고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매뉴얼』, 사단법인 교육진흥연구회.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 태정호 역(1996), 『인간의 조건』, 한길사.

Barfield Owen(1973), *Poetic Diction*, Wesleyan University Press.

Finnegan Ruth(1977), *Oral poetry : It's nature, significance and social context*,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idegger Martin(1998), *Sein und Zeit*,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까치.

Mondin Battista(1996), *Anthropologia Filosofica*, 허재윤 역, 『인간 : 철학적 인간학 입문』, 서광사.

Pleminger Alex(1965), *Princeton Encyclopedia of Poetry and Poe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lett H. F.(2002), *Einführung in die rhetorische Textanalyse*, 양태종 역, 『수사학과 텍스트 분석』, 동인.

Riemann F.(2007), *Grundformen der Angst : eine tiefenpsychologische Studie*. 37. Aufl, 전경애 역, 『불안의 심리』, 문예출판사.

<초록>

고대가요에 대한 국어교육적 탐색

—사고와 경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최홍원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고대가요 교육내용을 사고와 경험의 문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대가요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는 이같은 문제인식 속에서 고전시가 텍스트의 가치와 의의를 국어교육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첫째, 고전문학은 감상과 공감보다는 단순 암기와 파악의 대상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는 경향성이 발견되는데, 특히 고대가요의 경우 그 거리감으로 인해, 이같은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평가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국가 수준 평가에서 고대가요가 배제되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재차 확인된다.

둘째, 고대가요는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의 수록 정도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다. 교재론적 분석을 통해 고대가요가 문학사적으로는 중요한 가치를 갖지만, 국어능력을 위한 국어교육의 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수록 정도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사고와 경험의 관점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안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언어를 통한 인간 사고의 수행’과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 문제의 경험’을 교육 내용 설계의 두 축으로 제시하였다. 사고의 관점에서 이들 작품은 언어를 통한 심리적 해소, 상대적 대상을 통한 자기 이해, 불러들이기를 통한 요구의 구체화라는 교육 내용을 갖는다. 경험의 관점에서는 인간 존재의 보편적 문제 경험, 인간 문제의 근원에 대한 경험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핵심어】 고대가요, 공무도하가, 황조가, 구지가, 사고, 경험, 국어교육, 문학교육

<Abstract>

A Study on Ancient Poetic Song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ocused on Thinking and Experience—

Choi, Hong-won

This study aims at constructing primarily the educational contents of ancient poetic songs from the new perspective focusing on thinking and experience. The reason why I set up Gongmudohaga(公無渡河歌), Hwangjoga(黃鳥歌) and Gujiga(龜旨歌) in the ancient poetic songs as the targets of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two following problems which I will mention later. Also, as I stand on the basis of the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 main task of this study is demonstrating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classic literature texts from the 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 I found out the tendency that the classic literature has been seen and approached as the object of mechanical memorization and grasp rather than appreciation and empathy. Especially, the tendency of the ancient poetic songs is noticeable because of the distance. From the aspect of evaluation, this problem is confirmed again as those are excluded from the national assessment carried out recently.

Second, the ancient poetic songs are included in a big difference in Korean textbooks and literature textbooks. Through analyzing teaching materials, I verified the cognition that the ancient poetic songs have significant value in the literary history but are not appropriate for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 language ability. Thus, the result gave rise to the gap of including those works.

In this study, under the awareness of above mentioned problems, I tried suggesting a new trend through the viewpoint of thinking and

experience. To be more specific, I proposed two axes for designing educational contents such as 'performance of human thinking through language' and 'experience of human problems by the media of languag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nking, those works have education contents, for example, psychological solution through language, self-understanding through relative object and actualization of demand through calling-in. From the standpoint of experience, experiencing the general problems of human beings and the root of the human problems is the main contents.

【Key words】 Ancient Poetic Songs, Gongmudohaga(公無渡河歌), Hwangjoga(黃鳥歌), Gujiga(龜旨歌), thinking, experie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Literature Education